

북스

Books

경제대국 중국 이면 계급 사회 현실 폭로

‘친구’ ‘페도’ 등의 작품으로 중국 현대 문화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자광과의 최신작 ‘즐거움 인생 1.2’이 나왔다.

초고층 빌딩으로 가득한 21세기 중국의 화려한 도시 뒷골목에 사는 가난한 젊은이와 경제대국 중국의 이면을 그린 소설이다.



원래만 꿈을 안고 화려한 도시를 찾아온 주인공 가오싱의 이야기를 통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단순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농민공’ 문제를 풍자한다.

소설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계급화되는 처참한 현실을 폭로하는 동시에 따뜻한 시선으로 농민공들의 처절한 삶을 보여준다.

(이레·각권 1만1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ju.co.kr

사람 살기 좋은 곳이 곧 명당이다

신정일의 新 택리지

신정일 지음

살기 좋은 땅은 어떤 곳인가?

문화사학자이자 도보여행가인 신정일(56) (사)우리땅 걷기 대표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실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신정일의 신(新)택리지-살고 싶은 곳’을 펴냈다.

책은 30년간 전국을 답사한 끝에 내놓은 종합적인 문화역사지로서 수십 년 동안 공력을 들인 인문지리학의 결정관이자 내년 초까지 모두 10권으로 완간할 ‘신정일의 신택리지’ 시리즈의 첫 권이다.

‘두 발로 쓴 대한민국 국토교과서’라는 부제가 달린 책은 ‘택리지’의 ‘복거총론’(卜居總論)을 교본으로 그 요지를 현대적 관점에서 풀어나간다. 특히 복거총론 중에서도 ‘산수’(山水)의 중심 내용인 시냇가에서부터 강가와 바닷가의 살만한 곳, 대를 이어 살만한 곳 등을 먼저 다루고, ‘산수’뿐만 아니라 ‘지리’(地理)와 ‘생리’(生利), ‘인심’(人心)까지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국토에서 저자가 꼽은 살만한 곳은 이런 곳들이다. 이종환이 ‘가거지’(可居地)의 원리로 제시했던 그 방식대로 선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은 시냇가 근처다. 물이 있으면 흙이 있고, 흙이 있으면 옥곡이 잘 자라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강변마을을 꼽았고, 마지막으로 바닷가마을이다.

시냇가 마을로 이름난 곳은 예안과 안동, 순흥, 예천 등 태백산과 소백산 아래 지역을 주로 꼽았다. 예



하회마을은 조선 전기 이후의 전통적 한옥들이 조성되어 있고 영남에서 이름난 터로 꼽히는 등 풍수적 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타임북스 제공)

산의 도산, 안동의 하회마을, 임해협 아래에 있는 의성 감씨 종택, 금 님이 알을 품는 형극의 닭살마을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진안·금산·장수·무주 등 금강 상류 일대는 시냇가와 산세는 뛰어나지만 들이 넓지 않아 살기에 적합할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강가에서 살 만한 곳으로는 춘천 우뚝뼉, 한강변의 여주, 동창천변의 청도, 삼가천변의 선봉곡 가옥 등을 꼽았다.

하지만 저자는 ‘가거지’의 조건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더라도 아주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다. 그 중 한 두 가지가 부족한 곳이라면 이를 보완해 이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한국의 정자문화와 서원, 당쟁으로 본 인심, 생리 등을 전통 풍수의 원리와 풍부한 사례를 통해 파악해 간다.

저자는 여러 지역과 마을을 답사하면서 이종환이 거닐었듯 당시 옛날의 모습을 떠올리는가하면, 그 변

화한 모습을 되짚어보며 국토에 대한 사랑을 설거한다. 또한 풍수의 원리와 역사를 토대로 마을의 주변 환경이나 인공물의 배치 등도 살펴본다. 그리고, 어디서 사느냐의 문제는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반성고 모작이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종환이 살았던 당시와 비교하면 세상의 풍속과 마을은 달라진 것 같다”며 “그가 살 만한 곳이라고 여겼던 계곡이나 강가뿐 아니라 사는데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 했던 바닷가에는 별장고 콘도를 비롯한 숙박업소와 음식점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8도를 지역별로 개관한 시리즈의 2·3권 ‘전라도’ 편과 ‘경상도’편도 함께 나왔다.

시리즈는 ‘서울, 경기’편(7월 발행 예정),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북한’ 순으로 나오게 되며 ‘팔도총론’(12월 발행 예정), ‘택리지하서’를 끝으로 완간될 예정이다.

(타임북스·1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ju.co.kr

책 사용법

정은숙 지음

‘책에 관한 책’이 주는 즐거움은 실타래 풀리듯 다양한 책으로의 여행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20년간 책 만드는 일을 해온 마음산책 정은숙 대표가 펴낸 ‘책 사용법-한 권자의 독서 분류기’는 그런 점에서 독서를 부추기는 마중물 같은 책이다.

‘책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좋은 말을 숨기고 있는지 잘 알고, 또 그것들이 자신의 삶 자체를 바꿨다고 생각하는 저자는 그 ‘구절’들을 많이 삽입했고 독자가 직접 그 책들을 찾아보게 되기를 바라며 글을 썼다.

‘책에 관한 책’이 주는 즐거움은 책으로의 여행

저자가 말하는 책의 기능은 이런 것이다. 대화로서의 책, 치유로서의 책, 오락으로서의 책, 지식으로서의 책, 그리고 인간화로서의 책과 ‘더 깊이 알게 하는 기능으로서의 책’까지.

그가 이야기하는 책 읽기의 유형도 참고하면 좋다. 100명에게는 다 다른 100가지의 독서법이 있지만 거기에는 또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다.

먼저 체험형 책읽기는 삶과 책의 내용을 결부 짓는 독서법이다. 이정우의 ‘탐독’에 실린 글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풀어내간다. 텍스트의 밑고 당기는 지적 게임 속에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사유형 책읽기는 김현의 ‘행복의 시학’을 통해 이야기한다.

정보 습득의 효능을 극대화한 책읽기인 개념형 책읽기는 김성희의 ‘맛있는 책읽기’가 길라잡이 역할

을 한다. 그밖에 책읽기와 떨어질 수 없는 도서관, 서재, 책을 만드는 사람들, 책의 역사 등을 세심하게 다루고 있으며 책을 읽기 위한 계명들도 실었다.

‘사라진 책들의 도서관’, ‘책은 나를의 운명을 지닌다’, ‘책 사냥꾼’ 등 책 말미에 정리해둔 70여권의 책은 또 다른 독자로 안내하는 유용한 나침반이다. 책꽂이에 꽂아두고 지나갔던 이들은 책을 다시 꺼내 꼭 읽어볼 일이며 책에 언급된 어떤 구절에 꽂혔다면 그 일절을 꼭 찾아보길 바란다.

‘작가세계’를 통해 문단에 데뷔, 시집을 펴낸 저자의 글쓰기 내공 역시 만만찮다. 그래서 책 읽는 즐거움도 크다.

(미음출판·1만1000원)
/김미영기자 mekim@kwangjuju.co.kr

대인동산일부동산
☎(FAX)223-1772 ☎011-002-2532
(부동산 전문, 대인동, 소백산, 나진)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올 빨리 필요 하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소읍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오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011-609-5221
(상무지구 이바름 길자당 1층)

토지매매

위치	면적(평)	용도	평당금액
상무지구	1,652㎡ (500)	상업	1,100만원
상무지구	2,247㎡ (680)	상업	1,200만원
상무지구	826㎡ (250)	상업	1,000만원
상무지구	3,422 (1,035평)	업무	800만원
동산동	22,000㎡	전당	10만원
나주사동	15,300㎡	조경	35만원
동림동	4,469㎡ (1,352)	준주거	350만원

건물매매

위치	임대보증금	월세	매매금액
현대지구	37억원	3,300만원	65억원
동림지구	7억원	1,700만원	32억원
상무지구	100억원	5,000만원	200억원
상무지구	25억	6,500만원	100억원
현대지구	4억	1700만원	28억원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금당 공인중개사
T.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우리은행 4거리 1층)

■감정기 이하

- 자연녹지 서구 벽진동 274평 공시지가 3억7천 매도 2억6500
- 4층건물 대지72, 건물 200 공시지가 3억 매도 2억8천
- 신안동 상업지 310㎡(94) 공시지가 3억7천 매도 2억4천
- 마북동 자연녹지, 대지 574평 공시지가 5억 매도 5억3천
- 대지, 우암동 소형도림 275㎡(83평) 1억5천
- 충장로5가 6층 건물 대지 33평 156 공시지가 3억 매도 5억
- 금남로 상업도로 뒤편 주택 영업용 직할 공시지가 매도 8400만원
- 박동 8차선 도로 대지 55 건물 206평 5층 건물 5억
- 회평동 6차선 도로 대지 135평 173 건물 3억 매도 8억5천
- 북포동 대지 413평 3층건물 공시지가 5억2천 매도 6억2천
- 금남로3가 대지100 건물 311 공시지가 6억5천 매도 7억5천
- 금남로5가 대지 대지 83평 건물 319평 공시지가 12억5천
- 4층과 5층은 공시지가, 전체 1억에 월 600만원 매도 16억
- 금남로 4가 대지 대지 237 건물 1463 공시지가 40억 3천 일부는 공실이고 전체 5억3천 원세 2천 매도 39억

■매도·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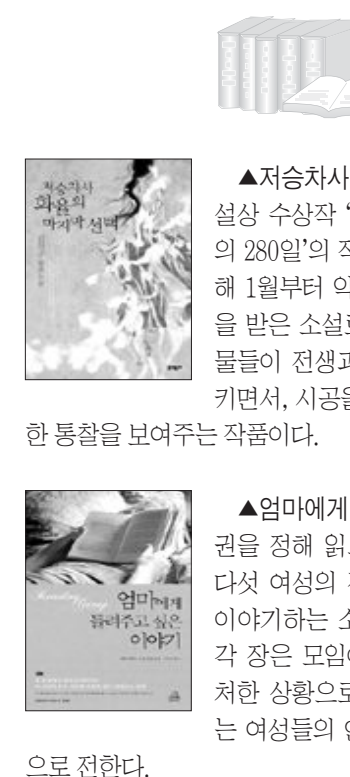
- 원흥 광우역 앞 대지 108평 건물 383평 부후 17개 원동 6개 2개는 공실 전체 8500 월 650 매도 7억4천
- 모태 누우동 대지 103평 건물 336평 건축가능한 땅과 교환 9억4천
- 모태 송정동 대지 280평 건물 387 건축가능한 땅과 교환 9억5천
- 생산동지 서구 서해동 650평 광장동 다동은 4억4천
- 생산동지 학교 등 다용도 땅 200평 1억3천
- 충장동 유수실 있는 담 575평 대지 10평포함 1억3천
- 전원주택 송산유원지 부근 196평 사할도 직할 6800만원
- 요양시설, 병원, 사옥 직할 유동4거리 대지 240평 건물 818평 대지 189평 공시지가 14억 매도 24억5천
- 나대지 280평 송산동 대우아파트입구 평당 205만원
- 북구 충효동 대지 147평 전원주택 직할 7900만원
- 담양읍 무인도림대지 1527평 분할가능 평당 77만원
- 생산동지 서구 역동동 1602평 공시지가 6억3천 매도 9억9천만원
- 자연녹지 706평 매월등 서광주역 부근 매도 9억9천만원
- 화순군 능주동 소재지 주택 대지 100평 수리해야함, 1900만원
- 화순군 한림면 관리지역 등 일야 13,882평 공장 등 다동도 1억8천
- 서구 유촌동 생산동지 1631 평과 학교, 공시지가 14억 3천 원고 1년 사할세 2200만원에 임대중인 22억 5천만원
- 신정동 대지 138평 대지 5천만원 교환가능 1억5천
- 원흥동 동화정동 대지 91평 건물 1455평 원흥 10개 부후 3개 쓰러짐 2개 주택 및 전체 1억 원 월 800 매도 5억3천
- 고려동 상업지 광산구 유수동 988평 영업원형 총용 8억 7천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블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무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군면지역/면적	대표이사 010-7570-7525	주택/상가	감정공사 010-8033-0114	중상/토지	경조사 010-5879-0005			
소제지 대지/건물	면적	중상/상가	최저가	비고	소제지 대지/건물	중상/상가	최저가	비고
광동	대27,210㎡	1042㎡	494㎡	58㎡	대27,210㎡	1042㎡	494㎡	58㎡
충동	대59,215㎡	1122㎡	44㎡	지하차량	대59,215㎡	1122㎡	44㎡	지하차량
누운동	대88,220㎡	1372㎡	744㎡	단독가옥	대88,220㎡	1372㎡	744㎡	단독가옥
원동	대22,206㎡	991㎡	895㎡	2층가옥	대22,206㎡	991㎡	895㎡	2층가옥
생산동	대92,211㎡	1756㎡	1043㎡	다용도주택	대92,211㎡	1756㎡	1043㎡	다용도주택
영동	대92,211㎡	1756㎡	1043㎡	다용도주택	대92,211㎡	1756㎡	1043㎡	다용도주택
남동	대10,200㎡	54㎡	1194㎡	유수실	대10,200㎡	54㎡	1194㎡	유수실
원동	대24,215㎡	1254㎡	1043㎡	8층빌딩	대24,215㎡	1254㎡	1043㎡	8층빌딩
광동	대77,227㎡	2224㎡	1244㎡	5층빌딩	대77,227㎡	2224㎡	1244㎡	5층빌딩
일동	대78,226㎡	105㎡	47㎡	소호상가	대78,226㎡	105㎡	47㎡	소호상가
금남동	대17,210㎡	1756㎡	895㎡	6층빌딩	대17,210㎡	1756㎡	895㎡	6층빌딩
유동	대14,209㎡	591㎡	249㎡	다가구주택	대14,209㎡	591㎡	249㎡	다가구주택
계동	대30,210㎡	895㎡	895㎡	오리소	대30,210㎡	895㎡	895㎡	오리소

아파트/빌라 양역동 010-3626-9920 주택/상가/감정공사 010-8033-0114 근린주택 임대료조정 011-684-3886



▲저승차사 화율의 마지막 선택=문학동네 소설상 수상작 '달을 먹다'와 '남촌 공생원 마나님'의 280일'의 작가 김진규의 세 번째 장편소설. 올해 1월부터 약 5개월간 인터넷에 연재되며 주목을 받은 소설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이 전생과 현생을 넘나들며 서로 얽히고설켜면서, 시공을 초월한 사랑과 운명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문학동네·1만1000원>

▲엄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매달 책을 정해 읽고 토론하는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다섯 여성의 진솔한 모습을 통해 '엄마'의 삶을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12장으로 구성된 소설의 각 장은 모임에서의 책 이야기가 등장인물들이 처한 상황으로 이입되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인생과 그들의 고민을 잔잔한 감동으로 전한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2000원>

▲성자 세익스피어 = '문학의문학' 장편소설 공모에 '하늘다리'로 당선되며 단란한 소설가 우영창씨의 두 번째 소설. 전편 '하늘다리'에서 주인공사에 근무하는 30대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자본주의 이면을 그렸던 그가 이번 소설에서는 번두인 인생으로 밀려난 '불쌍한' 40대 가정의 애환을 한 편의 슬픈 코미디로 담아냈다. <문학의문학·1만1000원>

▲인생이출문제집 2=젊은 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다룬 에세이 '인생이출문제집'의 두 번째 이야기다. 과제와 김여진 김인숙 노홍철 등이 자신의 20대 때 온 몸으로 겪었던 고민을 털어놓으며 격려와 비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무엇이 정답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인생 설계 코딩북이다. <북하우스·1만4000원>

▲세계지도의 탄생=세계관을 표현하는 '세계도'가 세계를 표현하는 '세계지도'로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지도의 역사를 통해 각 문명의 특징과 상호 교류의 흐름을 알아낸 점이 흥미롭다.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도가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조명한 한 점이 돋보인다. <알라·1만6500원>

▲베를린, 젊은 예술가들의 천국= '예술가들의 천국'으로 불리며 전 세계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독일 베를린의 미술과 미술환경을 소개한 에세이다. 베를린에서 13년간 생활하며 미술사와 전파학을 공부한 조이한씨가 자신의 독일 유학 시절 경험과 2008년 두 달 동안 머무르며 살았던 당시의 베를린 미술현장을 생생하게 보고했다. <현암사·1만6800원>

▲음악사의 문명적 순간들=르네상스 음악가 제수알도부터 현대 음악가 존 케이지까지 서양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작곡가들의 곡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작곡가의 개인적인 배경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도 함께 분석했다. <열대림·1만4800원>